

# 광주시의회, '윤석열 내란 옹호' 단체 지원 조례 제정 논란

###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김용임·서임석·심철의 의원 등 발의 시민사회 단체 "의원들 말로만 내란 세력 청산, 5·18정신 외쳤나"

'윤석열 내란'을 옹호해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전날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는 광주시 예산으로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지부 육성·지원과 활동을 위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임(비례)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임석(남구 1선거구)·심철의(서구 4선거구)·박수기(광산 5선거구)·박필순(광산 3선거구)·박희을(남구 3선거구)·임미란(남구 2선거구) 광주시의원과 무소속 심창욱(북구 5선거구) 광주시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당초 지난 3월 20일 발의된 이 조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차례 부결됐으나 이번에 다시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광주시의원들은 상위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점, 전남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된 점 등을 근거로 행정위에서 통과시켰다는 입장이다.

조례안과 상관없이 상위법률 규정이 있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광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됐다.

문제는 한국자유총연맹이 극우논란이 일고 있다는 단체라는 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자유총연맹이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인사들을 강사로 초청해 논란이 됐다.

이 자리에서는 자유총연맹이 주최한 행사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벌인 이들을 '애국청년'으로 치켜세우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이어졌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도 "탄핵소추된 대통령

을 다시 내란죄로 체포·구속하는 모습이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개탄스럽다"고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총연맹은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적극 옹호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비판도 있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맞불 집회·여론 조성 등의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제 집회 동원 의혹 등이 제기됐다.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연일 광주시의회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놓고 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광주시민들이 매일 5·18 민주광장에 함께 모여 절실한 마음으로 '윤석열 탄핵과 내란세력 청산'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을 때,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자고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최근 '리박스'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며 더욱 논란이 일고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말로는 5·18정신을 외치고, 윤석열 탄핵, 내란세력 청산을 외쳤던 민주당 시의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광주진보연대도 2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은 이례적으로 2023년과 2024년, 자유총연맹 창립기념 행사에서 축사를 하며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였고, 그에 화답하듯 자유총연맹은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스스로 삭제하고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 옹호했다"면서 "광주는 윤석열 내란을 단죄하고 민주정부를 세웠던 힘이 넘쳐나고 있다. 그 때서인 시민의 힘이 광주시의회로 향하지 않게 하라"고 경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내 일자리는 어디에 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광주 함께 잡(JOB) 페스타'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3선 출마 시사...김영록 지사 "도민이 허락한다면 민선 9기에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6일 도지사 3선 출마를 시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3선에 도전할 것이냐는 질문에 "도민이 허락한다면 민선 9기에도 도지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7년 간 열심히 일해왔다"며 "그 동안 추진해온 일들이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고 민선 9기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많다"면서 3선에 출마 가능성을 높였다.

전남 정치권에서는 1년이 채 남지 않은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 앞두고 김 지사의 3선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내각 입각설도 나왔지만 새 정부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김 지사는 3선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또한 이같은 분위기를 잘 아는 듯 "3선 출마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아직 매진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국립의대 사업의 경우 8부 농선을 넘었지만 모든 일은 100%를 채워야 해결될 수 있

다"며 "민선 9기 도지사는 더 없는 영광이자 직분으로 도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지사는 "(3선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 우선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2018년 제 7회 지선에서 전남도 지사에 당선돼 첫 지사직을 수행했으며,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만약 김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3선에 성공한다면 보궐선거 당선자를 제외한 역대 민선 전남도지사 가운데 유일한 3선 연임 지사로 기록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시, 귀농·귀촌 희망 농업인 정착 지원

### 신규농업인교육 교육생 모집

광주시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교육(농촌정착반)' 교육생을 7월 1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신규 귀농·귀촌인들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광주시에 거주하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농업인과 영농 경험이 적은 신규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촌 생활 이해, 기초 영농기술 습득은 물론 법률·유통 등 실질적인 정착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교육은 7월 말부터 9월까지 매주 1회, 총 10회에 걸쳐 운영된다.

총 50시간 교육에는 현장 견학을 병행해 교육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성됐다.

교육은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교육관 및 농업현장 등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광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이나 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시, 실국장급 4명 전보인사 단행

### 안전·문화 중점 배치

광주시가 실국장급 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26일 단행했다. (인사명단 20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실장(직급 2급상향)에는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이 보임됐다.

시민안전실은 이재명 정부의 재난 및 안전 강화 기조에 부응하며 재난·안전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 도시철도 공사 관리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안전실에 신설될 예정인 '안전민원공정상황TF'를 통해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관리하고 시민 피해에 대응할 계획이다.

3급으로 승진한 윤창모 관광도시과장과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각각 정책기획관과 도시공간국장으로 전보됐다. 공석인 문화체육실장에는 전은옥 정책기획관이 임명됐다.

한편 광주시는 실국장급 전보를 시작으로 4급, 5급이상, 6급이하 전보도 다음달 14일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 전남도, 전기료 최대 25만원

전남도는 26일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착한가격업소 400곳으로 업소당 25만원 한도에서 전기요금을페이백(사후환급)한다.

지원을 원하는 업소는 올해 납부한 전기요금 영수증을 첨부해 해당 시·군에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착한가격업소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식당, 미용실 등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